

홍색혁명력사 전시관에서 항일가요 우렁차다

— 연길시칠색합창단 혁명전람관 찾아 선렬들 업적 노래



▲ 룡정시 홍색혁명력사 전시관에서 항일가요를 열창하고 있는 칠색합창단 단원들

4월 11일 오전, 연길시칠색합창단의 34명 단원들은 리상덕 단장의 인솔하에 룡정시서류관에 자리잡은 '한락연 생평 전시관'과 룡정 동산홍색문화원에 자리잡은 '룡정시 홍색혁명

력사 전시관'을 찾아 선렬들의 사적을 학습하고 항일가요를 합창하는 것으로 선렬들의 업적을 노래하고 선전하였다. 칠색합창단은 혁명 유적이거나 혁명 전람(전시)관을 찾아 항일가요

를 부르면서 항일영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애국주의 정신과 홍색 전통을 이어가는 합창단으로 소문났다. 리상덕 단장은 "칠색합창단은 항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가지 계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변주내는 물론 상해와 같은 외지에도 나가 뜻깊은 기념 활동을 하게 된다."고 소개하면서 이날의 행사는 그 계열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락연 생평 전시관'에서 해설원의 안내하에 위대한 혁명가이고 예술가인 한락연동지의 생평을 학습하고 그의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였으며 항일가요 <혁명가>를 합창하는 것으로 한락연동지를 기념하였다.

'룡정시 홍색혁명력사 전시관'은 룡정시(연길현)의 혁명 역사를 10개 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는데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룡정시의 근대사와 토지혁명시기, 항일전쟁시기, 해방전쟁시기, 항미원조전쟁시기 등 부당한 시대에 용솟음쳐나온 영웅 인물들과 사적들을 학습하고 항일가요 <녀성 해방가>와 <약소민족 해방가>를 합창하는 것으로 선렬들의 업적을 기렸다. / 김태국기자

우리 나라 과학환상 문학 '황금기' 맞이

— AI·문화콘텐츠와 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 열어



▲ 사천성 성도시에서 열린 '물인형 예술전'에서의 '삼체 기원' 섹션과 관람객

우리 나라의 과학환상(科幻) 문학이 전례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얼마전 중국과학환상연구센터가 발표한 <2025년 중국 과학환상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과학환상산업 총매출이 1,089억 6,000만 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중 과학환상 독자 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5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10년전 중국 과학환상 소설 <삼체(三体)>가 휴고상을 수상한 이후 수년간 과학환상에 몸담는 작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 미래 과학환상 문학 키워드는 '융합' 최근에는 창작에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 줄거리 구성, 캐릭터 설정 등에 AI를 활용하면 효율도 오르고 작품의 가능성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독서, 과학환상 문학 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

융합 등 과학연구가 과학환상 창작에 서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학은 기술 물리와 문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 과학환상 문학 키워드는 '융합'

최근에는 창작에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 줄거리 구성, 캐릭터 설정 등에 AI를 활용하면 효율도 오르고 작품의 가능성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독서, 과학환상 문학 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

작가 진주범은 "인간과 기계의 협업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그는 파운테이션 모델을 리용해 플랫폼을 확장하고 영감을 얻는 등 2017년부터 AI와 공동 집필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화대학의 심양교수팀은 AI를 활용해 소설 <기억지(机忆之地)>를 창작했으며 이를 과학환상 공모전에 낙점으로 출품해 수상하기도 했다.

과학환상 문학과 다른 문화와의 결합도 일종의 추세가 되었다.

연극, 음악, 미술 등과 결합해 다채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과 합쳐져 더욱 몰입감 있는 체험을 선사한다.

과학환상 문학과 다른 문화와의 결합도 일종의 추세가 되었다. 연극, 음악, 미술 등과 결합해 다채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과 합쳐져 더욱 몰입감 있는 체험을 선사한다.

과학환상 문학과 다른 문화와의 결합도 일종의 추세가 되었다. 연극, 음악, 미술 등과 결합해 다채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과 합쳐져 더욱 몰입감 있는 체험을 선사한다.

더불어 과학환상 작가들은 국제 교류 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작품의 세계 무대 진출을 앞당기고 있다. 이에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출판되는 중국 과학환상 작품이 날로 늘고 있다. / 신화넷

연변가사협회 작곡조, 현장 창작 활동 진행

연변가사협회 작곡조의 현장 창작 활동이 일선 화룡시 서성진에서 있었다. 국내외에 37명의 성원을 두고 있는 연변가사협회 작곡조, 이번 활동에는 13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가사 <고향은 언제나 봄날>을 주제로 현장 작곡을 진행했다.

행사는 원 연변대학 예술학원 음악리론강좌장 황성렬교수의 작곡 리론 강의

로 첫 장을 열었다. 이어 연변가사협회 김광룡 회장이 현장 작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가사를 바탕으로 창작할 것을 주문했다.

작곡가들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에서 창작 경험을 얻으며 작곡에 몰두했다. 자가용차 안에서, 김치음 앞에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겨푸내기로 멜로디를 구성하는 작곡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날 완성된 10여곡은 황성렬교수의 평가를 거쳐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특히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먼길을 달려온 작곡가 김영중의 열정은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전날 오후 흑룡강성 해림에서 출발해 내시간 동안의 장거리 빠른 타고 왕청에 도착하고 또 택시로 받듯게 룡정에 도

작했다가 이튿날 첫 사람으로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연변가사협회는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수천수에 달하는 조선어 가사를 창작해내며 중국조선족 문화생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번 가곡 창작 행사도 우리의 문화 발전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삼철

대련조선족문학회 산문창작강좌 마련

문학 창작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을 취지로 한 대련조선족문학회 산문 창작 강좌 모임이 12일 대련시에서 있었다. 대련조선족문학회 30여명 회원들이 활동에 참가했다.

활동에서 대련시작가협회 전임 주석 소소가 산문 창작에 관한 강좌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탄탄한 문학 창작 경험에 비추어 산문의 정의와 발전 역사, 그리고 현대의 산문 창작 실태를 분석하고 나서 "진솔한 고백은 산문의 영혼으로서 독자의 심금을 울려야 하고 이미지는 산문의 뼈와 같아서 자자의 독특한 심미적 공

간을 구축해야 하며 생동한 언어는 산문의 살이기에 소박하고 운치 있는 표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강좌가 끝난 후 소소는 활동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주었다.

모임에 참가한 문인들은 격변기 생

활 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문학 작품을 창작할 의향을 밝혔다.

몇년래 대련조선족문학회에서는 해마다 여러가지 문학교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 장명화, 리심민

'우리 문학의 새로운 물결 매체문학' —

김춘택작가의 문학특강 연길에서



▲ 특강 현장 및 특강을 하고 있는 김춘택작가



4월 16일 오전, 길림백전문화미디어유한회사가 주최한 '김춘택작가의 문학특강'이 연길시의 연변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춘택작가(1972년 안도현 출생)는 중국소수민족작가학회 회원이며 연변작가협회 회원으로서 현재 길림백전문화미디어유한회사 사장, 월간 전자잡지 <백천문학> 주필, <송화강> 잡지사 영상문학 편집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소설, 시, 동화, 수필,

평론 등 장르를 아우르는 다산작가로써 작품집으로는 동화집 <날개 달린 산새 알>, <달빛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 소설집 <순수의 꽃 너는 순수의 빛이었다>, <성Q 사막을 사랑하다>, <개미 뼈를 짓는 사람> 등이 있다.

김춘택작가는 <우리 문학의 새로운 물결 매체문학>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인쇄매체를 넘어 디지털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표현되는 새로운

문학 형태로서의 매체문학의 산생과 특징 및 앞으로의 방향 등을 다양한 문화 형태와의 비교 속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년간 길림백전문화미디어유한회사에서 제작한 전자잡지와 문학특집 등을 실례로 영상자료를 리용하여 매체문학의 우세와 현실성을 펼쳐보여 참가자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김춘택작가는 "따분한 인쇄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수많은 문

화 재부를 창조해주었다면 매체문학은 우리 문학인들에게 무한한 창작과 발표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더욱 많은 문학인들이 매체문학을 리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특강에는 전경업, 한영남, 오경희, 김정권, 박춘월 등 기성작가(시인)들과 문화애호가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 김태국기자

할빈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개막



▲ 명작 뮤지컬 <시카고>의 두 주연 배우

페스티벌은 국내외 최정상급 뮤지컬 작품과 예술단체를 한데 모아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주게 된다.년간 국내외 명작 뮤지컬 7부작 20여회 공연을 비롯해 고품격의 '뮤지컬 팝업 갤러리' 조성, 할빈 대극장 신규 문화 창의 제품 5종 출시, 셔플 전용 로션 1개 추가, 3개의 중급 협력 호텔과 연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할빈을 '국경 없는 예술 도시'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는 토니상 6관왕 브로드웨이(百老汇) 명작 <시카고>의 세계 순회공연 계획이 공개되었다. 제작진과 함께 무대에 오른 주연들은 재즈 열정과 태평의 강렬한 리듬으로 브로드웨이 황금기의 매력을 재현해 관객들의 열띤 박수를 받으며 공개 예고편을 선보였다.

뮤지컬은 국경을 넘는 '세계 공용어'로서 전통로 이야기를 전하고 춤으로 감정을 나누며 문명 교류의 의미를 담아낸다. 이번 페스티벌은 예술의 향연이자 문화와 관광의 융합 모델이다. / 흥룡강일보